

섬 #7

에필로그: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

개방 기간 2022년 1월 14일(금)-16일(일)
위치 37.51333857449171, 126.90018591255607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Isle #7

Epilogue: Three Circles with(in) the Whale

Period January 14 (Fri)-16 (Sun), 2022
Location 37.51333857449171, 126.90018591255607
Venue Seoul Art Space Mullae Box Theater

추운 겨울이다. 지난 가을 우리가 함께 그린 동그라미들이 이제 막 짧은 여정을 마쳤다. 어떤 동그라미는 고래의 눈에 담겨 명월주가 되었고, 어떤 동그라미는 두꺼비와 함께 씨앗이, 어떤 동그라미는 닭의 영혼인 달걀이 되었다. 닭의 알인 달걀이 500여 년 전 난파된 씨앗을 물어왔다. 씨앗이 이곳에서 고래-인간의 그림자를 덮고 꿈을 꾸다. 표류한 씨앗 아래에 달이 된 고래의 눈도 우리와 함께 놀는다.

It is a cold winter. The circles we drew last fall have just finished their short journey. Some circles became the eye of the whale, *Myongwolju*, some became the seed with toads, and some circles became the egg, the soul of a chicken. The chicken brought the seed that was wrecked more than 500 years ago. The seed covers itself with the shadow of whale-human and dreams. The whale's eye, which is now the moon, lies also with us, beneath the drifted seed.

Archipelago Map

아키펠라고 맵 가이드
임고은
Go-Eun Im

“메르카토르도법의 북극, 적도, 회귀선, 자오선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고 종잡이가 외치면 선원들이 대답하곤 했다. “그건 단지 틀에 박힌 기호일 뿐이다!”
...
“그가 우리에게 최고의 해도(海圖)를 주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백지!”
- 루이스 캐럴, <스나크 사냥>(1876) 중에서

“What's the good of Mercator's North Poles and Equators, Tropics, Zones, and Meridian Lines?” So the Bellman would cry: and the crew would reply. “They are merely conventional signs!”
...
“...he's bought us the best - A perfect and absolute blank!”
- Lewis Carroll, *The Hunting of the Snark* (1876)

섬 #1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

개방 기간 2021년 10월 29일(금)-11월 3일(수)
위치 37.51333857449171, 126.90018591255607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Isle #1

Three Circles with(in) the Whale

Period October 29 (Fri)-November 3 (Wed), 2021
Location 37.51333857449171, 126.90018591255607
Venue Seoul Art Space Mullae Box Theater

우리는 다른 존재의 삶과 죽음이 전하는 기호를 얼마나 감각하고 사유하며 이에 반응하고 있을까? 그들과 맺어왔던 우리의 폐쇄적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열어 놓을 수 있을까? 경계를 흐리거나 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긴장을 유지하며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비움과 채움이 만나는 작은 동그라미 속으로 고래와 인간의 시간이 잠수한다.

How much do we sense, speculate, and respond to the signs conveyed by the life and death of other beings? How can we open up our clandestine relationship with them? Rather than blur or abolish boundaries, can we sustain the tension that animates such alterity and not neutralize that relationship? In search of answers, whale-time and human-time dive into a small circle where emptiness and fullness meet.

섬 #2

[모래-정원 3부작] 낯선 정원의 찰나

개방 기간 2021년 11월 5일(금)-11월 14일(일)
위치 37.57208170323274, 126.89248590628274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Isle #2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In the Instant of a Foreign Garden

Period November 5 (Fri)-November 14 (Sun), 2021
Location 37.57208170323274, 126.89248590628274
Venue Oil Tank Culture Park T2 Theater

타자의 공간인 낯선 정원, 이곳에서는 갈등이 조화롭게 반복되고 질서와 무질서, 삶과 죽음이 새로운 경계를 끊임없이 그어간다. 우리는 이곳에 경계와 배척을 심었지만, 안과 밖이 분명하지 않은 꿈들이 자라났다. 개인의 고독과 공동체의 자아가 만나는 이 마법의 동그라미에서 엘렌 식수는 그녀의 것이 아닌 그녀의 정원 이야기를 들려준다.

In this foreign garden, the space of the other, cycles of harmonious conflict, order and disorder, and the perpetual negotiation of life and death draw new lines. Boundaries and exclusion are planted here, and yet the dreams-with no clear borders of inside and outside-have grown. In this magical circle, Hélène Cixous tells us the story of her garden which is not hers: the enclosure becomes the crossroad where one's solitude and the communal self meet.

섬 #3

[모래-정원 3부작] 명월주: 그림자의 연못

개방 기간 2021년 11월 5일(금)-14일(일)
위치 37.57208170323274, 126.89248590628274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실내공연장

Isle #3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Myungwolju: The Pond of Shadows

Period November 5 (Fri)-14 (Sun), 2021
Location 37.57208170323274, 126.89248590628274
Venue Oil Tank Culture Park T2 Theater

이전에 펼쳐졌던 고래-인간의 이야기가 고래의 눈에 담겨 모래-정원의 명월주(明月珠)가 되었다.
낮선 정원 속 연못에 비친 이 둥근 달은 석유로 채워지고 고래로 비워지며 또 하나의 동심원을 그린다. 다른 존재와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낮선 정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감각과 사유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The whale-human story that unfolded in the previous isle is caught in the whale's eye and embodies the Myungwolju of the sand garden. The full moon, reflected in the pond of the foreign garden, is filled with oil, then emptied by the whale, and ripples in concentric circles. When we gaze at our relationship with other beings-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foreign garden-how much can we speculate and how far can our senses expand?

섬 #4

[모래-정원 3부작] 다른 정원: 조엘의 정원

개방 기간 2021년 11월 5일(금)-14일(일)
위치 37.571425444419404, 126.89218298223317
장소 문화비축기지 T1 파빌리온

Isle #4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The Other Garden: Joel's Garden

Period November 5 (Fri)-14 (Sun), 2021
Location 37.571425444419404, 126.89218298223317
Venue Oil Tank Culture Park T1 Pavilion

또 다른 정원이 나무숲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곳의 정원지기 조엘은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정원에 머무는 다양한 생명체를 돌보는 인물이다. 그의 조용한 꽃들은 이 낮선 정원에 말없이 씨를 뿌리고, 개구리와 박쥐, 새, 달팽이, 돌고래가 풀잎과 함께 자란다.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조엘의 한 해는 지금을 뒤집고, 모퉁이를 돌아 다시 시작한다.

There were rumours of another garden hidden among trees. Joel, a gardener, is a protector of the defenceless, and a caretaker of many creatures. Joel's gentle blooms are sown in silence, and the frog, the bat, the bird, the snail, and the dolphin grow together with grass in this foreign garden. Although all is gone, the year turns its back and turns a corner.

섬 #5

모래알 속 정원들

개방 기간 2021년 11월 5일(금)-14일(일)
위치 37.57212948838908, 126.89246858468069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야외 극장

Isle #5

The Gardens in a Grain of Sand

Period November 5 (Fri)-14 (Sun), 2021
Location 37.57212948838908, 126.89246858468069
Venue Oil Tank Culture Park T2 Outdoor Theater

<모래-정원 3부작>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지하 극장과 유리 온실에서 자라나 야외 극장에서 흩어진다. 야외 극장 객석 위에 쌀가루로 그려진 코람(Kolam, கோரம்) 속 차고 기우는 달은 모래알 속 정원이 된다. 곤충과 새가 함께 쌀가루를 나눠 먹는 이 정원은 서서히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집을 동식물과 곤충, 해와 달과 별이 함께 사는 영역으로까지 넓힌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의 언어로 우리를 말하고, 너의 언어로 우리를 들으며 확장된 가족의 복을 빈다.

The tales of the foreign garden in 'The Gardens in the Sands Trilogy' grow in an underground theatre and the greenhouse, are dispersed from an outdoor theatre. The waxing and waning moon drawn with rice powder in the Kolam(கோரம்) on the seats becomes the gardens in a grain of sand. This foreign garden, where insects and birds share the rice flour, gradually disappears, as it expands our home to the realm, where animals and plants and insects,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live together. Here we speak of us in my language and hear about us in your language, wishing the fortune of the extended family.

섬 #6

실재하는 두꺼비가 사는 상상의 정원

개방 기간 2021년 12월 1일(수)-5일(일)
위치 37.58168031648176, 126.9678791837229
장소 옴/신 스페이스

Isle #6

Imaginary Gardens with Real Toads

Period December 1 (Wed)-5 (Sun), 2021
Location 37.58168031648176, 126.9678791837229
Venue Ob/Scene Space

먼 곳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사전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두꺼비와 함께 상상의 정원을 일군다. 낮선 존재의 언어를 매만지고 다시 쓰며 돌봄의 집을 함께 짓는다. 이렇게 빛어내는 우리의 말이 흙과 함께 세상을 걷는다. 씨앗에 담겨 이동하고 뿌리내리며 많은 세상을 만든다. 이 많은 세상이 곤충과 함께 싹트고 동물과 함께 자라나 다시 우리를 만든다.

In order to live together, around 100 people from afar compiled their knowledge to create a dictionary. Now we will listen to the stories in this book and cultivate an imaginary garden with real toads. We will touch and rewrite the language of strangers and build a house of care together in this isle. Kneaded in this way, our words will walk into the world together with the soil. The words contained in seeds will spread, take roots and create many worlds. These many worlds will sprout with insects, grow with animals, and make us again.